

“고려불화 통해 유럽에 한국불교 알려요”



혜담 스님이 고려불화를 재현하는 모습

프랑스 예술계서 문화특별상 수상한 혜담 스님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고려불화를 현재 유럽 등지에서는 일본의 문화유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불화를 소개해 한국문화와 불교의 우수성을 알리고 포교에도 나서겠습니다.”

고려불화의 대가 혜담 스님이 최근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화축전인 ‘프랑스국립예술살롱’에 고려불화 재현작을 출품해 고전과 창작 분야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혜담 스님은 구랍 24일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새해에는 유럽 각국에서 고려불화를 소개하는 등 세계에 우리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속초 계대사 주지 혜담 스님은 프랑스국립미술협회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카루젤르 노트르홀에서 구랍 17~21일 개최한 2015프랑스국립예술살롱에 대표작 ‘수월관세음보살도’를 비롯한 12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한불수교 130년을 고려해 협회 측은 이례적으로 대규모의 고려불화를 살롱에 전시해 대중에게 소개했다. 프랑스국립

예술살롱은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미술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로 고려불화 전시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 마련됐다. 특히 스님은 이번 전시 후 고전, 창작의 두 분야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혜담 스님은 “고려불화는 얼마 남지 않아 희소가치가 높아 오히려 환수가 난해한

프랑스국립예술살롱에 12점 전시

고려불화 재현, 한국불교문화 알려

“고려불화 아직 일본 것으로 알아”

상황”이라며 “비록 재현이지만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고려불화는 160점 중 130여 점이 일본에 있으며 국내에 있는 것은 20여 점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혜담 스님은 1980년 초부터 고려불화 복원에 앞장서 왔다. 1999년 첫 전시회를 시작으로 30여회의 국내외 전시회를 개최했다. 2009년에는 사단법인

계대사 고려불화연구소를 설립, 학술적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랑스국립예술협회가 지난해에 이어 혜담 스님을 초청한 것은 고려불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스님은 아쉬움도 표했다. 스님은 “일본에서는 이미 2005년도에 담정 스님의 고려불화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렸고, 그로 인해 유럽에서는 고려불화를 일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고려불화는 당시 시대배경과 민족성이 모두 담겨 있는 세계사에 유래없는 문화유산”이라며 “고려 500년간 국교인 불교사상이 그대로 담겨있고, 예경이 예술로까지 확장된 경우”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당시 불자들의 원력이 담긴 고려불화 속에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포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또 세계인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이 전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권오민 교수 ‘불교학 입문’ 5일 개강

미פות아카데미, 매주 화·수요일 오후 2시 진행

권오민 교수(경상대 철학과)가 불교학을 보다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스님이나 대학원생, 교양대학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불교학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1월 5일부터 매주 화, 수요일 오후 2시 서초구 방배동 마지에서 열린다.

미פות아카데미가 2016년도 첫 강좌로 준비한 ‘권오민 교수의 불교학 입문강의’는 조계종 교육원에서 2016년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으로 지정됐다.

이번 강좌는 구체적으로 △제1강 불교

(학)의 기본전제: ‘깨달음’과 ‘수행’과 ‘믿음’ △제2강 다양성과 유연성의 불교: 불교에 무량의 성인이 존재하는 이유 △제3강 초기불교1: 괴로움(세계)의 생성과 유전 △제4강 초기불교2: 불교의 중심개념(‘法’) △제5강 후기불교, 비판과 종합1: 자리와 이타 △제6강 후기불교, 비판과 종합2 △제7강 불교의 분류와 갈래: 무엇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제8강 불교학과 불교, 불교와 불교학이다.

노덕현 기자

법련사 ‘불일인문학강좌’ 개설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주지 진경)가 1월 7일 개강하는 ‘제3기 불일아카데미’ 불교입문반과 경전반, 불일인문학강좌 등 세 강좌 신입생을 모집한다. ‘불일인문학강좌’는 이번에 새로 개설되는 강좌로 불교가 시민사회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첫 프로그램은 정진원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의 ‘삼국유사, 여인과 건달’이 진행된다. 삼국유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인을 통해 우리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강의로 현장답사도 함께 진행된다. 정 교수는 올해 10월 ‘삼국유사의 한국학 콘텐츠 연구’로 ‘제15회 삼국유사 학술문화제’에서 문화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이 ‘불교입문반’을, 동국대 법준 스님이 ‘원각경’ 경전반을 운영한다. 세 강좌 모두 3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입문반과 경전반이 각 10만원, 불일인문학강좌는 15만원이다. (02)733-5322 노덕현 기자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어린이중창단은 구랍 19일 제6회 BBS 어린이 청소년 창작찬불동요제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섬소년·소녀들의 음성공양, 가슴 울렸다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어린이중창단, BBS창작찬불동요제서 금상 수상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어린이중창단이 구랍 19일 BBS불교방송이 마포 다보빌딩 3층에서 개최한 ‘제6회 어린이·청소년 창작찬불동요제’서 금상을 수상했다.

이날 대회에는 솔로와 듀엣, 중창 등 모두 10개 팀이 준비한 노래를 선보였으며 제주지원 어린이중창단은 마음 수행의 중요성을 담은 ‘마음밭에는’을 불렀다. 한편, 이날 대상은 ‘우리스님 겨울나기’를 부른 금교초등학교 박현진 양에게 돌아갔다.

이밖에 인기상은 ‘마음이 자라는 소리’를 부른 진관사 어린이 중창단이 수상했으며, 은상은 ‘그냥 오세요’를 부른 도농초등학교 신예원 양, 동상은 ‘부처님 말씀 따라가보면’을 부른 명촌 초등학교 성보은 양에게 돌아갔다.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은 “어린 불자들이 불교를 좀 더 친숙하게 느끼고 진정한 부처님 제자로 자라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스마트폰 중독, 명상으로 치유해야”

법상 스님, 구랍 22일 종교계 대토론회서 강조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를 맞아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종교계의 논의장이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사진)은 구랍 22일 한국정보화진흥연구원(원장 서병조)이 연세대 장기원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불교계 패널로 참가해 발표했다.

‘스마트시대, 불교적 명상을 통한 중독 문제 대응’을 주제로 법상 스님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해법으로 ‘명상’을 제시했다. 스님은 이날 스마트폰 사용을 금기시해 부작용을 초래하기보다 자기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청소년시기는 자기 정체성 확립이 되는 시기로 강압적 금기보다는 올바르게 건전한 콘텐츠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며 “명상은 곧 숨으로, 숨을 통해 마음의 욕구와 갈등을 내려놓고 중독에서 벗어나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특히 스마트폰의 강박과 유해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다.

스님은 또 조계종 포교원이 진행하는 청소년 인성개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스님은 “2013년에 개발된 ‘청소년 마음



거울 108’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에서

접근이 쉬울 뿐만 아니라 중독 치유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자녀의 인성을 바꾸는 108가지 이야기’의 경우 심

성을 순화시키고 사고력을 높여 건전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병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김민수 천주교주교회의의 마스크위원회 총무가 각 종교에서 스마트폰 중독예방 활동을 소개했다.

양병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은 디지털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정신적, 영적 사명이 종교계에 있으며 신앙 공동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영 SK브로드밴드 사회공헌팀장은 “개인적 결핍이 미디어 중독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가정 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다양한 결핍 원인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와 기업, 개인들 모두가 입체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덕현 기자

국립광주박물관 ‘사진으로 보는 문화재’ 전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이 문화재 애호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2월 28일까지 전시관 1층 중앙홀에서 기획전 ‘사진으로 보는 문화재’를 개최한다. 이번 사진 전에는 장승, 석탑, 창과 문살, 석불을 소재로 문화재사진연구소 회원들이 촬영한 사진작품 40여 점이 전시된다.

국립광주박물관 측은 “사진이라는 매

체를 통해 우리의 풍토에 맞게 발전한 석탑, 석불, 장승 및 창과 문살에 담긴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우리 문화에 깃든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2008년 ‘스투파-아름다운 우리 탑’과 2010년 ‘천불천탑 운주사’ 사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대학원생, 우수논문지원사업 선정

동국대(총장 보광)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에서 재학 중인 김익균 씨가 2015년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은 동국대는 문화학술원(원장 장영우) 산하 한국문학연구소 학술지 <한국문학연구> 46집에 수록된 ‘서정주의 체형시와 ‘하우스만-릴케. 니체-릴케’의 재구성-서정주 시학을 구축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이 2015년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고 구랍 24일 밝혔다.

김 씨는 논문을 통해 서정주의 첫 시집 <화사집>이 보들레르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기존의 해석이 갖는 맹점을 비판했다.

이번 논문은 새로운 관점의 수립, 특히 하우스만과 릴케의 결합이 어떻게 서정주의 내면성을 구축하는지를 분석해 향후 서정주의 시적 패러다임을 재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당 서정주 시인 탄생 백주년을 맞아, 서정주의 시학을 새롭게 조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는 김익균 씨는 최근 한용운 연구에도 도전하고 있다.

2014년 동국대에서 발족한 만해연구소와 연계해 ‘강원도의 지역성과 한용운의 수업시대’를 발표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완도 신흥사

주지 법공

사) 완도문화21
청소년교육문화단체 장보고 아카데미
완도불교문화대학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성내리 168번지
TEL 061)554-2634
홈페이지 www.sinheungsan.net

대한불교 조계종
행복 나눔 도량

금 선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산 4-1번지
TEL 062)942-3260

한국불교대교종

연화 약사사

주지 수연

■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가 74-12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천 룡 사

주지 무등(無等)

천룡사 신행기도회
- 매월 둘째 일요일 출발
- 사찰 순례 및 정진기도

다라니 독송회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다라니 독송 49편

원만상호 지니는 모임(원지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불자들의 예절 교육

BBS광주불교방송 토요일강
- 매주 토요일 밤 10시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240번지(용연길 26-23)
■ 전화 062)234-1338
■ 다음카페 : 천룡사 - 좋은인연
http://cafe.daum.net/chunoun